[보도자료]

이 자료는 2012년 9월 18일(화)에 배포되었습니다.

국제사회 성 주류화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캐나다, 독일 전문가 초청해 "국제사회의 성 주류화 정책과 실천" 주제로 한국 정책방향 모색하는 성 주류화 국제심포지엄 개최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배 포 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배포 날짜 : 2012년 9월 18일(화)

보도 날짜 : 2012년 9월 18일(화)

언론담당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보담당 황 애 리

(연락처: 02-3156-7296, 이메일: aeri2008@kwdimail.re.kr)

행사문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문 희 영

(연락처: 02-3156-7180, 이메일: mhy4x@kwdimail.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은 오는 9월 20일(목)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국제사회의 성 주류화 정책과 실천"을 주제로 성 주류화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성 주류화 정책이 모범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캐나다와 독일의 사례 발표와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한국의 성 주류화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국제 심포지엄 개요

☐ **주제** 국제사회의 성 주류화 정책과 실천

☐ **일시** 2012년 9월 20일(목) 12:30-17:30

☐ **장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

☐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은 오는 9월 20일(목)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국제사회의 성 주류화 정책과 실천”을 주제로 성 주류화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성 주류화 관련 제도가 내실있게 수행되어 공공정책이 성 평등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는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 성 주류화 국제 심포지엄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08년(“국제사회의 성 주류화 동향과 한국의 여성정책 전략”)부터 정책의 성 주류화를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 최금숙 원장은 “이번 성 주류화 국제 심포지엄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및 성 인지 통계 등 성 주류화 관련 연구자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국내 성 주류화 정책의 내실화에 이바지할 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행사의 개최의의를 밝혔다.

<행사 개요>

□ 2012년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되고 지방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된 원년으로 성 주류화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다.

□ 이에 이번 행사는 성 주류화 정책이 모범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캐나다와 독일의 사례발표와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한국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발표 1은 올레나 한키브스키(Olena Hankivsky) 캐나다 사이몬 프레이저대학 교수가 "성 주류화와 성 평등, 거버넌스"를 주제로, 발표 2는 가브리엘 캠퍼(Gabriele Kamper) 독일 베를린 시정부 성평등국 국장이 “독일 성 주류화 정책과 거버넌스, 성과와 발전방안”를 주제로, 발표 3은 김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한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발표한다.

○ 토론자로는 김경희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박기남 한림대학교 연구교수, 유성희 한국 YWCA연합회 사무총장, 이기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황영주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가 참여해 한국 성 주류화의 향후 방향을 논의한다.

붙임 1. 해외초청자 프로필 및 발표 주요내용
붙임 2. 프로그램

붙임 1. 발표자 프로필 및 발표 주요내용

□ 올레나 한키브스키(Olena Hankivsky) 캐나다 사이몬 프레이저대학 교수

○ 프로필 : 올레나 한키브스키 교수는 캐나다 사이몬 프레이저대학에서 공정정책을 가르치고 있으며, 동 대학 교차성 정책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녀의 전공은 공공정책과 정치이론이며, 젠더, 교차성(intersectionality), 사회보건 정책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 **성 주류화와 성 평등, 거버넌스**

- 캐나다 연방정부 내의 여성지위청(SWC)은 차관보급이 참석하는 부처간 위원회를 연간 3-4회 개최하고, 성분석(GBA)과 캐나다 정부의 주요 평등정책을 논의함
- 1995년 캐나다에 성분석(GBA)이 도입되면서 캐나다 정부는 통합적 접근, 즉 기존 정책과정에 성(gender)를 주류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음. 이를 위해 매뉴얼을 개발하고, 성인지 교육・훈련을 진행해왔음
- 그동안의 캐나다 성분석(GBA)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성(women)과 성(gender)의 동일화, 이성애 규범의 특권화, 남성과 남성성에 대한 관심 부족, 다양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과 관련하여 비판을 받고 있음
- 이에 2012년 5월, 여성지위청은 새로운 성별영향분석 전략(GBA+)을 발표하고, 성별 뿐 아니라 연령, 교육, 언어, 지역, 문화, 소득 등 다양한 요소들이 교차하는 지점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함

□ 가브리엘 캠퍼(Gabriele Kämper) 독일 베를린 시 정부 국장

○ 프로필 : 가브리엘 캠퍼 국장은 베를린 시 노동・통합・여성부처의 국장으로 2008년부터 일하고 있으며, 성 주류화, 성평등정책 기본계획(GPR)을 책임지고 있다.

○ 독일의 성주류 정책과 거버넌스: 성과와 발전

- 베를린 시정부는 2002년부터 성 주류화를 성 평등 정책의 일환으로 삼고, 시범단계를 거쳐 12개 베를린 관할 지방정부에 체계적으로 확산하였음. 이 과정에서 성 주류화 시정부위원회가 설치되었고, 각 지방정부에는 성평등 담당부서가 신설됨
- 베를린 시정부는 성 주류화가 시범사업의 성격을 넘어 정책현장에 통합되어 일상의 일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 성평등기본계획(GPR)을 수립하였음

- 성 주류화 정책을 포함한 성평등기본계획이 부서간 경계를 넘어 실행될 수 있도록 시정부와 지방정부에 젠더담당관을 임명하였고, 성 주류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 성 주류화를 포함하는 성평등기본계획이 베를린 시정부의 성평등 정책으로 실행되면서, 공무원 뿐 아니라 전문가, NGO의 참여가 높아졌는데, 이는 베를린 시정부가 보다 성평등한 정책을 구현하는 원동력이 되었음.
- 행정부처 뿐 아니라 의회, 전문가, NGO의 성 주류화 거버넌스가 정착될 때 베를린 시의 성평등 정책이 강력하고 견고해 질 것으로 기대함.

□ 김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프로필 : 김경희 연구위원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정책연구실에 소속되어 있으며, 중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계획・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팀장이다. 적극적 조치,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한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새로운 도전

- 2005년부터 시행해 온 한국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면서 전환기를 맞이하였으며, 같은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지방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됨
-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평등한 사회의 실현이라는 성 주류화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 중 하나로, 공공정책을 성 인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해 성 평등이 한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전략임
- 한국의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는 분석평가의 수준을 높이고 환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과 참여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유형의 거버넌스 모델을 개발해야 함
- 발표를 통해 한국의 성 주류화 제도화 과정과 젠더 거버넌스,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운영과 추진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면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붙임 2. 프로그램

<프로그램>

시간	내용	
12:30～13:00	등 록	
13:00～13:30	개회식	
	• 사 회 : 이택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평가팀 팀장) • 개회사 : 최금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 축 사 :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13:30～15:00		사회: 이재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 발표 1: 성 주류화와 성 평등, 거버넌스 Olena Hankivsky (캐나다 사이몬 프레이저대학 교수) • 발표 2: 독일 성 주류화 정책과 거버넌스, 성과와 발전방안 Gabriele Kämper (독일 베를린 시정부 국장) • 발표 3: 한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새로운 도전 김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5:00～15:30	휴 식	
15:30～16:30		사회: 이재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토 론	• 토론 1 : 김경희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 토론 2 : 박기남 (한림대학교 연구교수) • 토론 3 : 유성희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 • 토론 4 : 이기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 토론 5 : 황영주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가나다순
16:30～17:30	종합토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이다. 현재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법령, 정부정책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분석을 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